

루이스 설리반과 아돌프 로스의 '기능'과 '장식'의 진의(眞意)와 그 연관성에 관한 고찰

강 태 응

(단국대 건축대학 건축학과 전임강사)

주제어: 설리반, 아돌프 로스, 장식, 기능, 형태, 테코롬, 시카고학과, 로스하우스

1. 들어가는 말

크루프트(H. W. Kruff)는 설리반(L. H. Sullivan)이 근대주의건축의 선구자 중 한명으로 여겨지게 된 데에는 스위스 출신의 사학자 기디온(S. Giedion)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주장했다¹⁾ 근대주의 태동의 핵심역할을 했던 기디온이 설리반의 아포리즘(aphorism)인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를 근대주의건축이 내세운 원칙 중 하나인 기능주의의 근원적 당위로 그의 책 ‘공간, 시간, 그리고 건축’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의 건축역사학자 존스(Peter Blundell Jones)는 기능주의에 대하여 설리반과 근대주의자들 사이에 명백한 관점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다. 근대주의자들의 기능주의는 설리반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들의 결과물들을 통해 볼 때 그들이 의미하는 기능은 단지 구축적 기능(structural function)이나 기하학에 의한 미학적 기능(geometrical aesthetics) 또는 조립의 공정

(function of assembly)에 따른 생산성을 위한 기능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

건축담론에서 해석과 적용의 오류 중 또 대표적인 하나는 로스(A. Loos, 1870-1933)의 짧은 글, ‘장식과 범죄’에 대한 해석이다. 순수주의 건축을 주창했던 르포르뷔지에는 그의 이론적 배경 중 하나로 장식과 전통에 대한 로스의 비판적 관점을 제시했다. 1908년의 글에 대한 프랑스 건축, 예술계의 반응에 의아해 하며 그것에 대한 진의를 1924년 ‘장식과 교육’이라는 글에서 로스가 분명히 언급했음³⁾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장식과 전통을 혐오하는 근대주의건축의 또 하나의 선구자로 주장해 온 아이러니는 역사적 이미지가 사실에서 출발

2) “... Looking at their buildings, ‘Form follows Geometry’ ‘Form follows Construction’, or ‘Form follows Assembly’ (for example Groupius’ Weissenhof house) would often be more appropriate designation. ...” P. B. Jones, *Modern Architecture Through Case Studies*, Architectural Press, Oxford, p. 47, 2002 피터의 주장은 이성주의자들의 기능에 대한 시각을 이해한다면 쉽게 유추된다. 이성주의자가 근대주의자라는 일대일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근대주의자들이 그들의 관점 전면에 이성을 내세운 것은 확실하다. 건축 담론에 있어 기능에 대해서는 본고 3-1에서 논의할 것이다.

3) P. Tournikiotis, *Adolf Loo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p. 23, 2002.

1) H. W. Kruff, *A history of Architectural Theory from Vitruvius to The Present*,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p.576, endnote 100, 1994.

하는 것이 아닌 기술하는 자의 관점에 따라 취사선택되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반증이다. 해석하는 주체에 따라 그 기술된 역사적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것은 관점과 그것의 기록 수단인 문자가 가진 특성이기에 그것을 타할 필요는 없다. 문자화된 자료는 없고 그 흔적들(건물)만 있다면 끝없는 상상력으로 그 흔적들을 통해 역사적인 이미지가 생성될 것이다. 문제는 문자와 흔적 즉, 충분한 판단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역사적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로스의 '장식과 범죄'가 그의 미국 방문기간에 접한 설리반의 '건축에 있어서 오너먼트'에 영향을 받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⁴⁾ 그러나 초기 근대 역사서를 비판 없이 수용해서 기술한 많은 건축 역사 개설서는 장식이라는 요소를 건축에 사용하는 것이 범죄라고 단순화하고 그것을 설리반의 아포리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로스와 설리반이 근대적 기능주의와 순수주의의 선구자임을 기술하여 왔다. 재확인 없이 먼저 기술된 이야기의 인용과 재인용을 반복하고 편집하면서 역사적 이야기는 점차 신화가 되어왔다. 물론 로스가 주장하는 '장식'이 근대주의자들이 의미하는 '장식'이 아님은 기존의 연구에서 연구된 바 있다.⁵⁾ 그러나 설리반의 아포리즘과 연계하여 분석하지 않고서는 '장식'과 '기능'이 갖는 근대적 본의를 인식하기는 힘들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과 문제의식으로 설리반의 아포리즘과 로스의 건축적 생각들을 재고하려 한다. 논의를 위해 먼저 로스와 설리반

의 건물들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기능주의와 장식의 삭제라는 동일성의 논리만으로는 건물과 그들의 건축적 생각이 연결되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설리반의 아포리즘을 언급된 건물과 그의 이론적 배경을 추적하여 그가 생각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볼 것이다. 이어서 로스의 '장식'의 개념을 설리반의 '기능'과 연계해서 기술하고 로스하우스를 통해 그 개념이 어떻게 건축화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이분법적 시각의 한계

앞에서 언급한 해석의 결과들은 명증과 정확을 추구하는 이성적 틀, 즉 근대적 동일성의 논리가 생성해낸 결과들이다. 이 틀은 사용자가 그 틀을 이용하여 현상을 명증하게 묘사하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모호해지는 철학적 특징을 보인다.⁶⁾ 로스의 '장식과 범죄'라는 1908년의 글은 장식은 범죄, 무 장식은 선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해 단순화된 논리와 건축관을 통해 로스의 건축을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나 '장식과 범죄'라는 글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문자 그대로 독해해 보더라도 장식이 범죄라는 의미인지 장식과 범죄를 각각 논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물론 그의 1908년 글에서

“왜냐하면 장식은 범죄자들에 의해 생산될 뿐만 아니라, 장식은 인간의 건강을, 민족자산을, 결국엔 그들의 문화발전을 심하게 훼손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⁷⁾

4) K. Frampton, op. cit., p. 90.

5) 정만영, “아돌프 로스의 추상적 피복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0권 8호(1994. 8), 문정희 “아돌프 로스의 건축에 나타난 비판적 전통주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6호 통권104호(2997. 6), 유연숙, “아돌프 로스의 장식배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건축학회논문집 제13권 3호 통권44호(2004. 6) 등 다수.

건축역사연구 제17권 5호 통권60호 2008년 10월

6) 이성적 틀이 가진 모호성과 모순을 건축 담론에 비추어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강태웅, “이성주의 기억말소와 비올레 르딕의 근대건축이론” 건축역사연구 제15권 4호 통권 48호(2006. 10) 참조.

7) 아돌프 로스, 장식과 범죄, 현미정 번역, 소호건축, p.292, 2006.

와 같이 직접적으로 장식은 범죄라는 등식을 만드는 것 같은 문장이 있긴 하지만 로스가 말하고자 하는 '장식'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의 진의를 단정하기에 글의 후반부는 반전에 가깝다.⁸⁾ 마찬가지로 설리반의 아포리즘은 설리반이 '기능'이라는 단어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했는지에 관심을 갖고 그 의미에 따라 해석하기보다 해석하고자 하는 자의 기계적 기능(mechanical function)⁹⁾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해석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같은 오류들은 동일성의 논리로 설리반과 로스의 건축을 파악하는 자들을 당혹하게 하는데 그 대표적 예가 설리반의 칼슨 피리 스콧 백화점(Carson Pirie Scott:1898-1904)¹⁰⁾과 로스의 골드만 & 살라쉬 스토어(Goldman&Salatsch store:1909-1911)¹¹⁾가 그것이다.

설리반은 기디온의 '공간, 시간 그리고 건축'에 꽤 많은 공간을 할당받았다. 그러나 몇 개의 설리반의 고층 건물 중 고층에도 들지 못하는 카슨 피리 스콧 백화점이 소개된 것은 굳이 자료를 뒤적이지 않아도 그 이유는 자명하다. 그것은 그 건물의 1, 2층을 제외한 층에서 보이는 무 장식의 구조적 명증성 때문이다. 기디온은 이 건물의 3층 이상 상부에서 보이는 격자 모양의 구조와 시카고 창은 건물의 기능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여긴 반면 하부구조



<그림 1> Carson Pirie Scott department store, L. Sullivan, 1898-1940
 는 설리반의 건축에서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기능하고는 상관없는 전통의 잔재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는 설리반의 이 건물에 대한 평가가 하부 부분 때문에 절하될 필요는 없다고 굳이 강조하고 있다¹²⁾. 여하튼 기디온은 설리반의 아포리즘이 100%는 아니지만 그 백화점에서 부분적으로 실체화되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하부 2층은 기디온 관점에서 삭제되어야 할 불순물인 것이다.(그림1)

흥미로운 것은 로스의 건물에 대한 평가에서도 비슷한 시각이 보인다는 것이다. 비록 건물의 설계시기가 설리반하고는 다르지만¹³⁾ 1908년 로스의 글이 출판된 지 1년 후에 설계가 시작되었으므로 그 글에서 주장된 그의 생각들이 가감 없이 드러나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로스 하우스는 그를 이성주의자

8) Ibid., pp. 296-298

9)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1에서 언급.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설리반이 주장한 기능역시 해석하는 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기초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에 대해 1926년 베네(Adolf Behne)의 근대의 기능적 건물(The Modern Functional Building)을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p. 128 참조.

10) 최초로 Schlesinger & Mayer Store로 명명 되었다가 후에 Carson Pirie Scott Store로 변경되었다.

11) 이 건물은 이후에 로스 하우스(Loos House)로 불려졌다. 본고에서는 글의 기술상 로스하우스로 명하려 한다.

12) S.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The Growth of a New Tra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pp. 338-389, 1967.

13) 백화점은 설리반의 말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로스 하우스는 로스의 초기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그의 건축을 대중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2> Goldman&Salatsch store, A. Loos, 1909-1911로 분류한 건축 역사가들¹⁴⁾의 저서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들 역사가들의 관심사는 로스의 개인주택 시리즈를 통해 그를 이성주의(Rationalism)와 순수주의의 선구자들 중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 다음 세대 역사가들에게서도 그 건물이 비중 있게 언급된 것은 아니다. 프렘프톤(K. Frampton), 커티스(W. Curtis), 램푸나니(V.M.Lampugnani) 그리고 타푸리(M. Tafuri)의 글에서 그 건물이 언급되었는데 타푸리의 경우를 제외하고¹⁵⁾ 상부는 단순하고 평면적인 장식없는 근대주의적 입면을 보이지만 하부는 아직 로스가 전통의 잔재와 장식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이는 그저 과도기적인 절충식의 건물이라고 평하고 있다.¹⁶⁾(그림2)

14) 소위 제 1세대 건축 역사가들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들은 페브스너, 기디온, 반햄, 히치콕이다. 특히 반햄은 1978년 샤프(D. Sharp)에 의해 편집된 이성주의자(The Rationalists)라는 책에서 로스를 고전적 이성주의자로 평하고 있다.

15) M. Tafuri & F. Dal Co Modern Architecture, Electa, London, pp. 103-104, 1986.

16) W. Curtis,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Phaidon, London, p. 141, 2001 V. M. Lampugnani, Architecture and City Planning in the Twentieth Century,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New York, p. 45, 1980 K.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Thames & Hudson, New York, p. 91, 2000 프렘프톤의 책에서는 당시 로스하우스를 풍자한 것의 삽화만이 있다.

건축역사연구 제17권 5호 통권60호 2008년 10월

우리는 역사가들의 두 건축가의 건물에 대한 평에서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건축가의 아포리즘이나 주장이 건물의 형태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다. 상부의 근대주의적 모습과 하부의 전통적, 장식적인 모습을 갖는 절충적 단순혼합체의 모습이다. 주장과 실체가 일치하지 않은 과도기 시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평하기엔 두 건축가가 두 혼합체에서 보여준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다. 적당히 타협하고 감추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극적인 대비를 통해 상부와 하부를 강조하고 있다. 그들의 저의는 근대주의 역사가들이 파악한 것이 아닐 수 있다.

3. 설리반의 혼합체(A mixed form)¹⁷⁾

타푸리는 설리반의 백화점이 도시의 이중성에 반응했다고 본다. 그 이중성은 소비와 판매의 세계, 상업과 업무의 세계이며 이것이 시카고라는 도시가 보이는 이중성이라는 것이다.¹⁸⁾ 설리반의 백화점은 저층 부분의 상업시설과 상층 부분의 업무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타푸리의 시각에 의하면 지상에서 2층까지는 소비와 판매에 반응하여 복잡한 철 장식으로 드러났다면 이후의 층에서는 하부의 영향이 약해지고 업무가 갖는 특성인 정확함과 차가움에 반응하여 명증한 구조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건물의 형태(form)는 도시가 가진 특성과 환경에 반응하여 무엇인가의 ‘기능(function)’을 수행한 것이 된다. 타푸리의 해석이 맞다면 근대주의자와 설리반의 ‘기능’에 대한 관점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그림 3)

17) 본고에서는 혼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섞기긴 하지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의미를 갖는 혼합과 섞여서 아예 성질이 변하는 융합(fusion)을 구별하기 위해서다. 설리반과 로스에게서 비판의 대상이었던 당시의 절충주의적 건물은 설리반과 로스의 건물과 비교해 봤을 때 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8) M. Tafuri, op. cit., pp.63-64.



<그림 3> Carson Pirie Scott Department store 하부 디테일, 1898-1904

3-1. '기능'의 역사적, 이론적 접근

포티(A. Forty)에 의하면 건축담론에서 '기능'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진화되어 왔다. '기능'이라는 단어가 건축담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이탈리아 건축가 로돌리(C. Lodoli, 1690-1761)부터이다. 17세기 철학자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담론으로부터 빌려온, '기능'이라는 단어를 로돌리는 당시 고전주의자들이 행했던 재료의 물성과 상관없는 구조적인 디테일의 비판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로돌리가 사용한 단어는 구축적(tectonic)인 기능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돌리가 초기 사용한 '기능'은 라이프니츠의 범주에 속해 있었다. 라이프니츠의 철학적 담론에서 '기능'은 '변화의 가능성을 갖는 복합체(the compound of variable)'의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기능'이라는 개념이 '수용'과 '적응' 그리고 '변화'에 그 핵심 개념이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로돌리의 '기능'은 18세기 말에 이탈리아 이론가 밀리자(Franseco Milizia, 1725-1798)에 의해 장식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이 다시 프랑스어로 번역되면서 기능은 장식에 반하는 개념으로 굳어져 갔다. 이 개념은 프랑스의 퀴비에(G. Cuvier, 1769-1832)를 비롯한 생물학자들의 해부학적인 개념과 합해지면서 기계적 의미를 갖는, 즉,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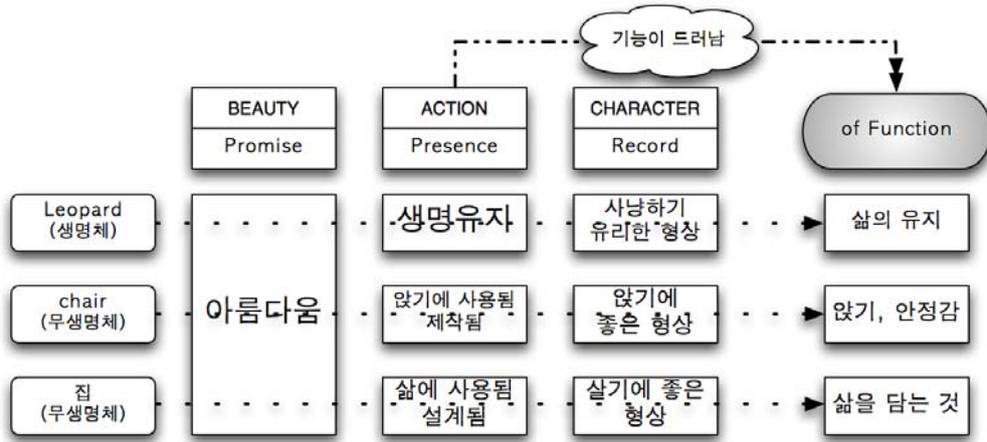
부분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의 완전성이 확보되는 메커니즘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배경으로 비올레 르 뒤크(Violet le Duc)의 구조적 이성주의(Structural Rationalism)가 등장했다. 프랑스의 기계론적 시각과는 달리 또 하나의 생물학적인 메타포는 라이프니츠의 학문적 전통에 더 가까운 독일이상주의 철학자들에게서 보인다. 이들의 개념에는 프랑스의 경우와 달리 '기능'에 대해 형이상학적 관점을 보이며 이것은 라이프니츠의 '기능'의 개념과 연관이 있음을 보인다. 이들이 말하는 '기능'이라는 개념은 생명체가 환경에 반응하고 적응하는, 즉, 삶을 영위하고 유지하는 유기체적 '기능'을 말한다.¹⁹⁾ 다시 말하면 유기체의 절대적 속성인 항상성(homeostasis)을 말하는데 이것은 유기체의 안과 밖이 상호소통으로 인해 수시로 변화함으로써 삶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밖은 유기체가 반응해야 하는 자극이며 그 자극은 유기체로 하여금 내부로부터 그 자극에 반응하여 적응하게 한다. 삶을 유지해야 하는 것, 이것이 유기체의 본질적인 '기능'이며 이 '기능'이 바로 유기체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유기체적인 '기능'²⁰⁾을 건축담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론가는 미국의 그리너(Horatio Greenough: 1802-1852)이다.²¹⁾ 평생에 대부분 이탈리아에서 보낸 그리너는 1848년의 글과 1852년 그의 사망 전에 쓰인 글에서 '기능'의 개념을 언급한다. '미국 건축(American Architecture:1848)'에서 그리너는 새로운 형태

19) A. Forty, Words and Buildings: a vocabulary of modern architecture, Thames & Hudson, New York, pp. 174-179, 2000.

20) 사실 미학이론에서 유기적 형태와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힘에 연관성에 대해서 영국의 러스킨(J. Ruskin)을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리너는 유기적 기능을 보다 직접적으로 건축과 건물에서 언급했다.

21) op. cit., pp. 177-178



<그림 4> 그리너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의 형상은 '삶의 유지'라는 절대적 기능에 반응한 결과이다. 그는 이 같은 생각을 무생물의 범주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려 했다. 그는 생명체의 기능이 현존(presence)의 단계에서 명확해지듯이 건물을 비롯한 생산품의 기능도 현존의 단계에서 드러난다고 했다.

는 자연의 법칙에서부터 유추되어야 하며 그것은 생물체의 뼈대나 그 표피를 잘 관찰하여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리너는 17세기에 빠로(Claude Perrault: 1613-?)가 구별하여 주장한 바 있는 기호(taste)에 의한 법칙, 즉 비례와 구성과 같은 미학적 체계를 부인하였다.²²⁾ 그리너는 이 글에서 조선(shipbuilding)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선과 같은 개념이 바로 미국의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몇 년 후에 발표한 '상대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미(Relative and Independent Beauty)'에서 그리너는 '기능'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언급을 한다. 러스킨의 이론적 배경 선상에 있는 영국인 가벳(Edward Lacy Garbett)의 영향과 함께 그리너는 '기능'에 있어 미학적, 도덕적 요소를 강조하며 '기능'의 추상적 정의를 한다.²³⁾ 그는 아름다움(beauty), 움직임(action), 그리고 특성(character)을 각각 기능의 잠재(the promise of

function), 기능의 현존(the presence of function), 그리고 기능의 흔적(the record of function)으로 연결하였다.²⁴⁾ 예를 들면 들에 핀 장미는 그것이 기능에 충실했기에 아름다울 수 밖에 없으며 장미가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그 기능이 장미에 현존한다는 증거이며 장미의 물리적인 모습은 바로 그 기능이 남긴 흔적이라는 것이다. 유기체는 기능에 충실해야 하고 그 충실함의 결과는 유기체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형태는 유기체의 특질을 보여준다. 우리는 여기서 1848년의 글에서 그리너가 건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시한 조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봄으로써 그리너가 생각한 '기능'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배를 만드는 기술인 조선은 결과물인 배로 하여금 철저히 그것이 처할 상황에 적절히 반응하게 해야 하고 그것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사람을 포함한 운송물의 안전한 항해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 배는 기능에 충실함으로서 아름다울 수 있고(beauty),

22) 빠로의 positive beauty와 arbitrary beauty에 대해서는 Wolfgang Herrmann, The Theory of Claude Perrault, A. ZWEMMER LTD, London, 1973

23) Horatio Greenough, Form and Function: Remarks on Art, Design, and Architec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d. 1947), p. 78

24) " When I define Beauty as the promise of Function; Action as the presence of Function; Character as the record of Function, ..." op.cit., op. cit., p. 71.

배의 형상은 기능에 대한 흔적이다(character). 그러면 무생물에게는 '움직임(action)'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그 개념은 재료가 되는 물질에 변화를 가하여 무생물체가 생성되는 상황과 그것이 사용될 때에 비로소 나타난다. 배는 그것이 제작되는 순간과 물을 헤치고 나가갈 때 비로소 기능의 현존(the presence of the function)을 나타낸다.(그림 4)

베네(A. Behne)는 기능주의자(functionalist), 이성주의자(rationalist) 그리고 실용주의자(utilitarian)가 기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실용주의자는 기계를 볼 때에 그것이 만들어내는 시간, 일, 에너지의 단축 등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이 있고, 이성주의자들은 표준화와 유형을 대표하는 것 즉, 어떻게 구성되었고 조립되었는가 각각의 부분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등 하나의 이상적인 완벽한 체계(system)로 보며 기능주의자들은 그것을 유기체와 가장 흡사한 움직이는 도구로 본다는 것이다.²⁵⁾ 여기서 이성주의자와 기능주의자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성주의자들은 배의 구성과 구조 그리고 기계적 메커니즘이 갖는 기능에 초점이 있다면 기능주의자들은 배가 처한 상황에 얼마나 적절히 반응하여 내부와 외부가 연계되어 그것의 '기능'인 물위에 뜨고 나아감이 충실한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즉, 그리너의 '기능'에 대한 개념의 부분에서 '움직임(action)'의 부분이 이성주의자의 개념에는 삭제되어 있다.

아프리카의 레오파드(Leopard)는 모든 생물이 수행해야 할 '기능'인 삶을 잘 영위하기 위해 순간적인 속도를 내고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형상화되었고 토끼 역시 삶의 유지

를 위해 발달된 청각과 긴 다리를 가졌다. 이것이 그리너가 말하고자 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라이프니츠 철학의 전통선상에 있는 독일 이상주의자들의 '기능'의 개념과 유사하다.²⁶⁾ 그러면 이제 시각을 건물로 돌려보자. 과연 건물이 수행해야 할 '기능'은 무엇인가?

3-2. 설리반의 아포리즘 : 건물의 기능

설리반 스스로 그리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역사적 사실은 없다. 그러나 그가 지나온 건축의 행보를 추적해 보면 독일의 이상주의미학(German Idealism aesthetics)과 이 철학에 영향을 받아 시작된 뉴 잉글랜드(New England)의 초절주의(Transcendentalism)의 영향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보스턴에서 태어나 16살에 M. I. T에 입학 후 설리반은 프랑스의 건축유학에 관심을 갖고 일년 만에 보스턴을 떠난다. 그러나 유학 전에 실무경험과 건축이론을 접해 보기 위해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헌트(R. M. Hunt), 퍼니스(F. Furness) 그리고 제니(W. L. B. Jenny)의 사무실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그들의 사무실에서 각각 초절주의와 독일인인 엘더만(J. Eldermann)을 통한 독일 이상주의의 철학을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엘더만은 설리반의 건축적 개념들을 형성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고, 특히 독일 이상주의 철학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너의 직, 간접적 영향을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단초는 설리반이 퍼니스 사무실에서의 근무했던 기간 중에 경험했던 인간관계다. 퍼니스 집안은 미국 초절주

25) A. Behne, trans. Michel Robinson, *The Modern Functional Building*,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for the History and Art and the Humanities, Santa Monica, p. 130, 1926.

26) 이 유기체적 기능주의는 헤링(Hugo Haring)과 샤로운(Hans Scharoun)을 비롯한 독일 기능주의자들의 기능에 대한 시각과 유사하다. 이것에 대한 국내 논문으로는 김경진, 임석재 교수의 2003년 6월 한국역사학회 논문 "Hugo Haring의 '신건축(Neues Bauen)'사상과 그 이론 발전의 상징론적 측면에 관한 연구 참조.



<그림 5> Wainwright Building, Sullivan, 1890
의 선구자 에밀슨(R. W. Emerson)과 깊은 교분이 있었고, 바로 그 에밀슨이 하버드 대학동창으로 그리너와 역시 정신적인 교류를 가졌다.²⁷⁾ 그리너와 설리반이 직접적인 관계를 가졌던 역사적인 증거는 사실상 없지만 그리너의 직접적 영향에 대한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정황은 설리반이 그리너의 유기체적 기능주의 시각과 유사한 관점을 갖기에 충분했음을 보여준다.

설리반의 기능과 형태에 관한 개념은 그가 1892년의 와인라이트(Wainwright) 빌딩(그림 5)과 1895년의 개런티(Guaranty) 빌딩(그림 6)의 설계 이후에 발표된 1896년의 글 ‘예술적 관점에서의 고층건물(The Tall building Artistically Considered)’에서 처음 등장한다. 설리반은 고층이라는 형태가 환경에 반응하여 건물의 ‘기능’에 충실하여 나타난 당연한 결과를 그의 아포리즘 ‘형태는 기능에 따른다.’를

통해 강조했다. 여러 층을 포개놓은 형태가 나타나야 할 환경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의 출현에 의한 사무공간의 필요, 수직 이동의 용이, 철구축기술의 발전,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바로 그것이며 건물은 그것에 반응하여 ‘기능’했고 이것이 결국 다층형태의 건물 출현을 가져 왔다는 것이다.²⁸⁾ 그러나 설리반의 ‘기능’에 대한 생각을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1892년의 글 ‘건축에 있어서 오너먼트(Ornament in Architecture)’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설리반은 여기서 건물에 덧붙여진(applied) 오너먼트와 건물로부터 나온(growing out) 오너먼트를 구별하며 후자의 것은 건물에 인상(character)을 부여한다고 했다.²⁹⁾ 3-1에서 언급한 그리너의 ‘기능’의 정의의 틀을 통해 다시 본다면, 건물이 기능에 충실했기에 고층건물의 출현은 정당화(beaty)되며 그 ‘기능의 흔적’들은 고층이라는 형태(character)를 낳았다. 움직임(action)은 그 건물이 설계되고 지어지는 과정이며, 그 건물이 경험자로 하여금 경험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한다. ‘기능의 현존(the presence of the function)’의 단계에서 설리반이 정의하는 건물의 ‘기능’이 드러난다. 설리반에게서 건물의 ‘기능’은 지적이며, 감성적이고 정신적인 존재, 바로 인간의 삶을 담은 것이다. 집을 예로 든다면 집은 거주자를 위한 조력의 위치나 봉사자로서 존재해야 하지 그것이 안락함 자체를 창조하는 무엇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생리적인 만족감만을 주는 것에 초

27) H. Morrison, Louis Sullivan: Prophet of Modern Architecture, W.W. Norton & Company, New York, pp.12 - 27, 2001.

28) M. M. Elia, Louis Henry Sullivan,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p. 121, 1995.

29) L. Sullivan, Ornament in Architecture, 1892, D, Sharp, Form and Function, The Open University Press, London, pp. 2-4 재인용, 1975.



<그림 6> Guaranty Building, L. Sullivan, 1894-1896

점이 있는 살기 위한 기계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무엇을 충족해야 한다.³⁰⁾ 설리반이 1896년의 글에서 제시한 고층건물의 3단 구성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다. 고전건축의 기단, 주신, 박공의 구성에서 그 개념을 차용했지만 설리반은 기단의 부분에 해당하는 지상에서 2층까지의 부분을 공공의 경험 영역으로 여기고 좀 더 자유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강조했다. 카슨 피리 스코트 백화점에서는 이 같은 개념이 좀 더 증폭되었다. 오피스 부분의 구축적인 단순한 형태와 상업 부분의 오너먼트 넘치는 형태의 혼합체는 이성주의자들에게는 당혹감을 주지만 설리반에게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설리반에게서 건물의 아름다움은 비례나 통일성 있는 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충실, 즉 삶을 담는 것에 있었다.³¹⁾ 오너먼트의 있고 없음은 건물의 가

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그것은 철저히 건물이 '기능'에 대해 충실한 결과에 따른 부산물일 뿐이다. 따라서 오너먼트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4. 로스의 혼합체

콜퀴혼(A. Colquhoun)은 로스하우스에서 어울림(decorum)³²⁾의 개념이 보인다고 했다.³³⁾ 로스하우스의 대지는 고전적인 파사드의 생미셸교회(Saint Michael' church)와 그 건너편에는 왕궁(Imperial Palace)이 자리잡은 미하엘광장(Michaelerplatz)의 맞은 편에 위치해 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기억이 혼재해 있고 가장 세련된 근대적 상업거리이기도하다. 로스는 복잡한 맥락을 갖는 이 장소에 복합적인 기능의 건물을 가장 잘 어울리게 끼워 넣는 수단으로 설리반의 건물에서 보였던 영역분리를 선택했다. 설리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저층은 대중을 위한 영역으로 장소의 맥락에 반응하고 상층의 영역은 거주를 위한 사적 영역으로 철저히 맥락에 무반응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한 건물에 두 가지의 다른 몸뚱이를 혼합한 구성은 건물을 바라보는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는 얼토당토않은 기형적인 건물이지만³⁴⁾

32) 데코룸은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십서에서 건축의 기능에 적합하게 장식과 구조체가 질서를 갖고 있거나 또는 건물 소유주나 그 건물의 성격에 맞는 오더(Order)를 적합하게 사용함을 의미한다. Vitruvius, *The Ten Books on Architecture*, trans. M.H. Morgan, p. 211, 1960 그러나 로스는 이 데코룸을 보다 맥락적(contextual)인 관점에서 보는 듯하다. 저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어울림이라고 번역하였다.

33) A. Colquhoun, *Modern Archite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pp. 76-77, 2002.

34) 로스하우스의 주거 층에는 화분을 놓는 작은 돌출물이 붙어 있다. 그러나 초기 안에는 주거 층의 입면 어디에도 돌출물은 없었다. 완벽히 깨끗한 흰색 벽면에 개구부만 뚫려 있었다. 1910년 9월 비엔나 허가권자는 공사를 중단시킨다. 이유는 바로 주거 층의 입면이었다. 로스는 그 즉시 현장을 떠나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버리

30) H. Morrison, *Ibid.*, p. 216-217.

31) *Ibid.*, p. 212.

여기에는 로스의 건축적 고갱이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장식과 범죄'에서 로스가 말하려 했던 것은 바로 이 건물에서 보이는 어울림과 연결되어있다.

4-1. 로스의 장식에 대한 관점

1908년의 글 '장식과 범죄'에서 로스는 신중한 독자라면 본인이 생각하는 장식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도록 일종의 표시를 해 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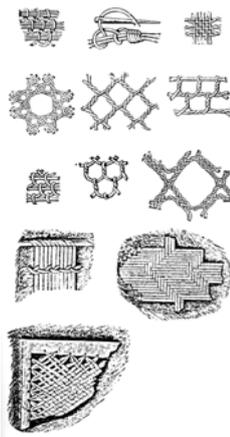
"... 문화적인 진화는 일상용품에서 장식을 삭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³⁵⁾

이 글의 문장 중 유일하게 이탤릭체로 써진 부분인데 그 중 "...일상용품에서 장식을 삭제..."에 주목해야 한다. 같은 해에 출판된 '과잉의 것들'이라는 글에서 그는 독일공작연맹과 더불어 반 데 벨데가 주장했던 생활의 예술화에 대해 비판하였는데 이 같은 관점은 사실 1900년의 글 '어느 가난한 부자의 이야기'에서부터 일관되게 언급되어 온 것이다. 이 글은 한 사람의 삶의 공간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정력적인 예술가(건축가)에 의해 통제되고 그것이 결국은 행복이 아닌 불행이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보여준다. 예술가(건축가)에게는 그 공간이 미의 정수이지만 액자하나도 원래의 위치에서 옮기지 못하고, 다른 어떠한 삶의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그 이상적인 공간은 더 이상 거주자의 장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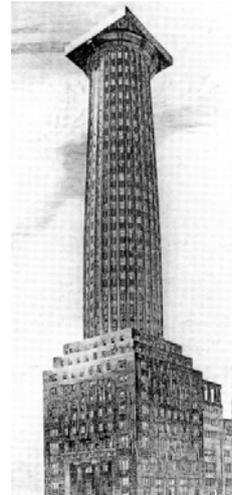
로스는 '과잉의 것들'에서 분명히 예술과 공예를 구별하여 언급하였고 예술가는 더 이상 '응용(applied)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삶의

고 대리인이 그 입면의 디자인을 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로스는 즉시 반박을 하고 이 스캔들은 로스가 주거 층 입면에 구리로 만든 작은 화분 선반을 일부 부착하는 걸로 마무리된다. 결국 로스의 의지대로 입면의 수정은 없었다. A. Sarnitz, Loos, Taschen, p. 37, 2003.

35) "... cultural evolution is equivalent to the removal of ornament from articles in daily use. "



<그림 7> 선형재료의 짜기(Weaving)에 의한 문양, G. Semper(1803-1879)



<그림 8> Chicago Tribune Tower, A. Loos, 1922

범주에서 머물지 말 것을 주장한다.³⁶⁾ 이러한 일관된 관점이 '장식'이라는 단어로 표출된 것이고, 1908년의 '장식과 범죄'라는 단문에서 재차 강조된 것인데, 약 12년이지나에스프리보(L'Esprit Nouveau)에 프랑스어로 출판되면서 코르뷔지에를 포함한 순수주의자(Purists)들은 전후 맥락의 고려 없이 장식은 건물기능하고는 관계없는 그저 삭제되어야 할 불순물로 여겨졌던 것이다. 로스는 1924년에 '장식과 범죄'의 해설서 격인 '장식과 교육'이라는 글로 다시금 그가 의미하고자 했던 '장식'에 대해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 로스는 여기서 다시 일상용품과 예술품을 구별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생산품간의 소외에 대해 언급하며 삶의 예술화를 그 모토로 그들만의 미학을 표준화라는 과정을 통해 강요했던 독일의 공작연맹과 빈 공방 등을 비판한다. 그리고 로스는 그가 주장하는 장식의 삭제가 순수주의자들의 것과는 명확하게 다름을 언급하고 있다.³⁷⁾

36) 아돌프 로스, 장식과 범죄, 현미정 번역, 소호건축, p. 283, 2006.

로스의 글만을 통해서 판단해보더라도 장식은 삭제되어야 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곳에 어떤 시기에 사용되었는가에 그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용품에서 미학적 추구가 주목적인 장식은 삭제되어야 할 대상이고 범죄다. 왜냐하면 일상용품은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대상을 말하며, 그것은 예술가의 논리에서 벗어나 그 기능과 집산적(collective) 욕구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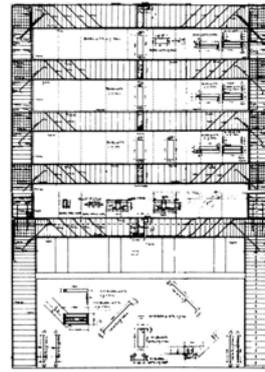
로스의 주장은 명확하다. 예술은 예술로, 삶과 연결되어온 공예는 공예로서 존재하기를 주장한다. 독일공작연맹은 예술가의 의지를 억압한 것 일뿐 아니라 일상의 기억도 퇴색시키는 것이 된다. 시대의 양식은 발견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의 자연스러운 총합의 결과인 것이다.³⁸⁾

4-2. 로스의 어울림(decorum)

로스에게 장식은 받아 드릴 수 있는 장식과 그렇지 못한 장식이 있다. 먼저 삶과 관련된 것에 적용된 미학적인 목적으로의 장식은 로스에게는 범죄다. 쟈퍼의 건축이론 중 하나인 피복이론에서의 주장한 바와 같이 재료적인 특징(nature of material)³⁹⁾과 그것의 운용(operation)을 위한 공예적인 장식은 로스에게는 범죄가 아니다.(그림 7) 그리고 순수 예술적 가치로서의 장식은 범죄가 아니다.

순수 예술적 가치에 대해 로스는 다시 세분하여 두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는 순수하게 창조적인 자유의지 관점에서 생성된 결과물이다. 이것은 그것의 결과로 인한 반응에 대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책임이 없으며 그러기에 앞으

로의 일들의 예측이나 현 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자유로이 피력할 수 있다. 둘째는 집산적인 기억을 내재할 수 있는 경우이다. 둘째의 경우인 집산적 기억의 내재에 비로소



<그림 9> 로스 하우스의 여 전면 파사드 구조도

건축이 예술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여 전면을 남겨준다. 로스는 기념비적인 건축이나 전통적인 무엇을 보존할 수 있는 건축의 범주를 예술에 포함시키고 있다.⁴⁰⁾ 이 지점에서 고전건축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근대주의자들과 차이가 발생한다. 로스에게 전통은 무조건 삭제해야 한 불순물이 아니라 좀 더 비평적으로 분석하고 선택해야하는 또 다른 건축의 범주이다.⁴¹⁾ 로스의 건물들에서 간간히 보이는 절충적인 모습은 이러한 틀로 해석이 가능하다. 1907년도의 비엔나의 전쟁기념관이나 1917년도의 요제프황제의 기념비 그리고 1922년의 시카고 트리뷴 타워(Chicago Tribune Tower) 현상설계안(그림 8)은 로스가 건축을 예술의 범주로 해석을 한 것이 된다.



<그림 10> 로스 하우스의 전면 파사드에 세워진 터스칸 오더의 하부 상세

37) Ibid., pp. 389-393

38) A. Colquhoun, op. cit., p. 74

39) 쟈퍼의 피복에 관한 이론들은 로스가 피복에 대한 그의 독특한 이론을 발전시키는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40) A. Colquhoun, op.cit., p. 75

41) 앤더슨(Standford Anderson)은 이 같은 관점을 '비 건축역사연구 제17권 5호 통권60호 2008년 10월

로스하우스는 일상의 영역(공예)과 집산적 기억(예술)의 영역 두 가지의 범주가 혼합된 체로 나타난다. 4장의 도입에서 언급했듯이 로스하우스가 위치하고 있는 광장은 비엔나의 전통과 근대, 절대적 왕권과 신권 그리고 상업과 문화가 혼재된 장소이다. 건물은 상업적 용도의 지하, 지상층 그리고 2층과 3층 이상은 주거용도를 갖는 복합건물이다. 로스는 먼저 건물이 반응해야하는 영역을 둘로 나누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표면이 다른 반응을 보이도록 하였다. 2층까지의 영역은 이탈리아산 치폴리노(cipolino) 대리석으로 피복하고 3층 이상의 주거 영역은 흰색 스투코(stucco)로 마감하였다. 대리석 마감의 영역은 공공과 상업의 영역으로서 장소의 집산적인 기억과 반응해 주변의 문화적 맥락에 건물의 입면에 반영하고 있다.⁴²⁾ 더욱이 입면에 나타난 오더들



<그림 11> 로스하우스와 왕궁

관적 전통주의'라고 주장했다. 문정희, 진경돈, 이강업, "아돌프로스의 건축에 나타난 비판적 전통주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 13권6호(통권104호),1997년 6월, p. 27

42) 로스는 1910년 12월 자신의 건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I conceived the house in such a manner that it would be integrated as much as possible into the plaza. I derived my cornice lines from those of the church. If I this form of window, it was not to drive away air and light, to multiply both, a legitimate claim of our times...I chose authentic marble because all imitation displease me, and I chose the decoration to a minimum because the Viennese bourgeoisie construct simply ... I took great care to rigorously separate the offices from the apartments. I knew to resolve these problem in the manner of our former Viennese

건축역사연구 제17권 5호 통권60호 2008년 10월



<그림 12> 로스하우스와 생미셀교회, 로스 하우스의 하부 입면은 주변 맥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은 모두 구조적으로 아무런 구속이 되지 않은 그야말로 장식 기둥들이다. 로스하우스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전면 출입구 14.13m의 길이를 한 개의 보로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의 4개의 기둥과 기둥위에 놓여 있는 철재의 인방(철재 인방은 다시 동으로 감쌌다.)은 구조와는 상관없는 요소들이며 인방 위 짧은 4개의 단순한 대리석기둥 역시 구조적이지 않다.(그림 9, 10) 기둥이 구조적으로 아무것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암시는 이미 로스가 측면의 입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측면에서 조금 어색하게 로스는 창 양측에 정면 기둥의 50% 크기의 터스칸 오더를 배치했는데 이것은 구조적이기 보다는 그 입면이 시각적으로 중첩되는 건너편의 입면요소에 반응한 결과이다.(그림 11, 12) 이렇게 로스는 정면의 오더와 측면의 오더를 다른 배치와 스케일을 통해 같은 건물이지만 각각의 입면이 처한 상황에 반응하게 하였다. 반면 주거부분은 철저히 일상용품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일상과 전통이나 예술은 각각의 자리가 있을 뿐 그것이 융합(fusion)될 수 없다. 이것이 로스의 어울림이라는 개념이다.⁴³⁾ 장식의 사용은 장식이 어울리는 곳에 있는가에 따라 범죄가 되고 그렇지

masters." Tournikiotis, op. cit, pp. 116-117에서 재인용.

43) A. Colquhoun, op. cit., pp. 76-77.

않기도 한다. 로스에게서 범죄의 판단 여부는 장식의 본질에 있지 않았다.

5. 결론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로 설리반과 로스의 '기능'과 '장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설리반의 '기능'은 근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기능, 즉 표준화를 통한 생산의 관점에서의 기능과는 다르다. 오히려 설리반의 그것은 근대시기의 독일 건축을 대표하던 미스와 그루피우스의 대척점에 서있던 휴고헤링(Hugo Haring) 진영의 유기체적 특질을 갖는 건축에 가깝다.⁴⁴⁾ 반면 '장식'은 로스가 주장하는 바의 핵심이 아니다. 로스는 '장식'이라는 것을 통해 건축이 사적 영역에서의 예술적 놀이로 전락하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로스하우스의 모순적인 복합체의 모습을 통해 로스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였다. 오히려 로스는 이상적(ideal)인 범주로 건축을 소급하려 하는 근대주의 건축에 경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근대주의의 무 장식의 추구는 오히려 그것이 장식일 수 있다. 설리반과 로스에게서 장식은 사실 무엇의 가치를 판단할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것은 설리반의 '기능'의 수행과 로스의 '어울림'을 통한 부산물 일 뿐이다. 장식의 있고 없고 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또는 주어진 '기능'을 잘 수행했는지 내지는 그것이 상황에 잘 어울렸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형태가 '기능'의 수행과 '어울림'의 부산물이며 그 형태는 절대적 미적 기준으로 아름다울 수 없다는

44) 유기적 기능주의, 유기체적 특질의 건축에 관해서는 김경진, "Hu 헤 Haring의 '신건축(Neues Bauen)'사상과 그 이론 발전의 상징론적 측면에 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제12권 2호 통권34호 (2003. 6), 황보봉, "한스셔로운 건축의 비대칭성과 불규칙성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역사학회논문집 20권 7호(2004. 7) 참조.

생각은 각각의 영향의 관계를 떠나 설리반의 아포리즘과 로스의 글이 가진 중요한 공통점이 다. 설리반과 로스의 건축적 연결고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근대의 시기에 등장했던 많은 건축적 담론들은 근대주의자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기계적인 명료함과 단순함을 갖고 있지 않다. 페러다임의 전환은 기존의 개념이 힘을 잃어 갈 때 등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근대주의의 페러다임은 오히려 근대의 많은 건축담론들을 단순화시켜 압축한 것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20세기의 근대주의는 페러다임으로서는 결격이 아닌가? 페러다임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고 서양은 그것을 아직 찾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근대의 수많은 담론들을 재고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기술(technology)에 의해 축소되어 온 건축의 본질을 찾는 것일 게다.

<참고문헌>

1. A. Sarnitz, Loos, Taschen, 2003 A. Sarnitz, Loos, Taschen, 2003.
2. H. Morrison, Louis Sullivan: Prophet of Modern Architecture, W.W. Norton & Company, New York, 2001.
3. A. Behne, trans. Michel Robinson, The Modern Functional Building,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for the History and Art and the Humanities, Santa Monica, 1926.
4. A. Colquhoun, Modern Archite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2A. Colquhoun, Modern Archite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2.
5. A. Forty, Words and Buildings: a vocabulary of modern architecture, Thames & Hudson, New York, 2000

6. D. Leatherbarrow & M. Mostafavi, Surface Architecture, The MIT Press, Cambridge, 2002.
7. H. W. Kruft, A history of Architectural Theory from Vitruvius to The Present,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4.
8. Horatio Greenough, Form and Function: Remarks on Art, Design, and Architec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d. 1947).
9. K.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Thames & Hudson, New York, 2000.
10. L. Sullivan, Ornament in Architecture, 1892, D, Sharp, Form and Function, The Open University Press, London, 1975.
11. M. M. Elia, Louis Henry Sullivan,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5.
12. M. Tafuri & F. Dal Co Modern Architecture, Electa, London, 1986.
13. P. B. Jones, Modern Architecture Through Case Studies, Architectural Press, Oxford, 2002.
14. S.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The Growth of a New Tra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67.
15. V. M. Lampugnani, Architecture and City Planning in the Twentieth Century,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New York, 1980.
16. W. Curtis,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Phaidon, London, 200.
17. W. Herrmann, The Theory of Claude Perrault, A. ZWEMMER LTD, London, 1973
18. 아돌프 로스, 장식과 범죄, 현미정 번역, 소호건축, 2006.
19. P. Tournikiotis, Adolf Loo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2002.

The meaning of Sullivan's function and Loos' ornament

- Focused on Louis Sullivan's Carson Pirie Scott
Store(1898-1904) & Adolf Loos' Goldman&Salatsch
Store(1909-1911)-

Kang, Tae Woong
(Full-Time Lecturer, Dankook University)

Abstract

One of the most notable architectural aphorisms in modern period must be undeniably Louis Sullivan's, 'Form Follows Function.' The aphorism has been not only an important source of new aesthetic but also an formal principle of machine age. Other most famous source in order to justify modern aesthetic was the short essay by an cynical critic, Adolf Loos(1870-1933), 'Ornament and Crime' of 1908. Apart from what the essay asserted it is also famous for the influence of Sullivan's architectural notion during Loos' States staying. For Architectural historians of the early 20th century this connection is so useful to create a legacy of modern architecture. The historians seemed to believe that Loos understood Sullivan's aphorism on which the historians wanted to focused. When we however look into two buildings designed and built in the period of publishing both aphorism and essay there must be a big fissure between the buildings and the historians interpretations. With this view point this study aims at showing the true meanings of Sullivan's aphorism and Loos' essay and also the big difference between the machine age's aesthetic and theirs.

Keywords: Sullivan, Loos, Ornament, function, decorum, chicago school, Loos-House
